

2015년 교육행정직 기출문제 해설

강사: 강수정

1 strange, unusal에 해당하는 말을 골라야 한다. peculiar는 ‘약간 괴상한’ 정도로 특이한 것을 뜻한다. extrovert 외향적인, responsive 반응하는, submissive 순응하는

2 catalyst는 ‘촉매’를 뜻하므로 어떤 일을 일으킨다는 뜻의 trigger가 답이다. deterrent 억제책, justification 정당화, consequence 결과

3 replica는 종이에 물감을 짠 후에 접어서 찍어내는 데칼코마니처럼, 다시(re:again) 접어서(plic:fold) 똑같은 것을 만들어낸다는 뜻에서 ‘복제품’을 뜻한다. duplicate도 두 번(du:two) 접어서(plic:fold) 같은 것을 찍어낸다는 말이다. emblem 상징, remnant 나머지, 잔여물(remain의 명사형), craftwork 공예품(craft 만들다)

4 글의 주제는 에디오피아가 언론매체에 의해 가난하기만 한 나라로 오해받고 있지만, 사실은 비옥한 고지대 평원이라는 것이다. ① 에디오피아는 기아와 동의어 관계임, ② 이 널리 퍼진 오해, ② 서양의 신화와 같은 거짓 믿음과는 달리, ④ 사막에는 여러분이 예상하시피 인구가 조밀하다? ④번에 인구가 별로 없다는 말이 필요하다. sparse는 ‘희박한’을 뜻하는데 그 말을 dense로 바꾼 듯하다.

5 ① 나는 여러 해만에 가장 인상적인 정부 정책들 중 하나를 보았다.

② 내가 너였다면, 나는 단지 경험으로라도 그 포지션에 지원하겠어.

③ 그 멋진 생각이 내가 제주에 온 후에 갑자기 떠올랐다.

④ 나는 예전 편지에 촉구했다/ 그들이 그의 동료로 다루어져야한다는 것을.

③의 occur는 무엇이 발생하거나 생각이 떠오른 것을 뜻하는 자동사이다. 생각이 난 것이지 누구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수동태처럼 보이게 하는 was를 없애야 한다.

6 (A)는 주어인 bee colonies가 죽고 있는 중이었다고 말해야하므로 were가 필요하다. 뒤에 시간부사 in 2006을 보면 단순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(B)에는 have been trying to로 연결해야한다.

7 (A)에는 organize의 대상인 명사절을 시작하는 접속사를 써야하고, 이 접속사는 perceive의 대상어 역할도 해야한다. 이렇게 명사절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명사역할을 하는 접속사는 what이다. (B)에는 주어(a person), 동사(read) 대상(the letters) 뒤에 동사인 read의 방법을 설명하는 부사를 써야하므로 differently가 적당하다.

8 ① 교수를 만난 건 과거고 딸이 메시지를 보낸 것은 더 과거이므로 had sent가 옳다.

② to key in의 주어를 일반인으로 보면 능동형이 맞다. 우리말에서 “각 메시지가 입력하는데 15초가 걸린다면”이라는 말을 할 때도 ‘입력하는데’의 주어는 일반인이다.

③ sending이 주어이므로 단수로 받는 것은 맞다.

④ a young man을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써야할 자리가므로 who rode를 쓰든지, riding을 써

야한다.

9 ① 앞서 말한 것이나 뒤에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일 때 So am I, So do I처럼 조동사를 도치시키므로 옳다.

② 10년은 날개 해들이 열 개 있는 것이므로 복수로 받는 것이 자연스럽다.

③ knowledge를 형용사절인 that절로 수식할 때, that은 한정적 수식만 하기 때문에 보통 앞에 쉼표를 쓰지 않지만, 이 문장에서는 both A and B가 쉼표에 의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쉼표 뒤에도 한정적인 형용사절을 쓸 수 있다.

④ EQI가 이제 IQI 2.0으로 불린다는 수동적 내용이므로 수동분사인 referring을 referred로 바꿔야 한다.

10 B가 좋은 한국 식당을 안다고 하자. A가 뭐라하고, B가 지금 갈까? 라고 말하므로 중간에 A가 한 이야기는 ‘가서 먹자’에 해당하는 말일 것이다.

① 그럼, 뭘 기다리고 있는 거지? (기다릴거 없잖아. 바로 가자.)

② 와, 믿을 수 없군! 그것 흠친 거나 다름 없어. (완전 저렴하네!)

③ 내가 육류를 싫어하는 거 몰랐니?

④ 내 생각에 그냥 오늘은 내 날이 아닌가봐. (오늘 운이 없네.)

11 앞에서부터 읽어야 하는 문제였다. B가 제니 수학을 도왔다는 말에, A는 제니가 수학천재라고 말한다. 따라서 A가 B의 말에 놀란 이유는 물고기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친 것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.

12 (A)에서 it is also the place라고 했는데, (C)에 언어는 ‘그 장소이다’라고 했으므로 (C)가 (A) 앞에 있어야 한다. 여기서 ①을 배제한다. subjectivity is constructed라는 말이 (A)와 (B)에 나오는데, (A)가 개념을 처음 말하고 (B)는 그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므로 (A) 뒤에 (B)가 나와야 한다. 이 지문은 내용의 추상도가 높아서 전체적인 개념을 제대로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.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순서대로 문장을 배열하는 것이므로,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방법을 써서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.

13 글의 주제는 유럽인들의 눈으로 본 새로운 지역들이다. ①은 미국 원주민들이 야만족으로 보였음. ② 문명은 없지만 자연친화적임. ③ 원주민들은 이민족들이 전쟁 따위를 가져온다고 이해함. ④ 따라서 ‘고귀한 야만족’이라 부름. ④에서 말한 ‘고귀한 야만족’은 문명은 없지만 자연친화적인 미국원주민들에 대한 유럽인들의 평가를 말하므로 이③이 엉뚱하게 삽입된 것을 알 수 있다.

14 주어진 글의 요점은 대략 이렇다. ‘Euathlos는 그러나 다르게 추론했다/ 내가 지면, 1심은 지지만 원래 계약에 따라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.’ 이 이야기는 꽤 널리 알려진 그리스 일화인데, 워낙 이야기가 복잡해서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웠다. 다만 제자한테 등쳐먹으려했던 선생이 제자에게 도리어 당했대나 아니면 그 반대였던가? 이런 정도는 기억이 났다. 여러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듣고 대략이라도 내용을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. 여하튼, however를 잘 사용해야한다. 전반적으로 Euathlos에게 불리한 것 같지만, 어쩌면 결국 손해볼 것도 없다는 말이므

로 아래 쪽에서 읽기 시작했다. ③ 프로토그라스는 추론했다/ 만약 E가 지면, P가 이길 것인데, 그러면 돈을 돌려받고, 혹시 지더라도 E는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여전히 갚아야 한다고. 이 이야기는 P의 생각이고 P에게 유리한 식으로 추론하고 있다. 그 다음에 E의 다른 생각이 나오는 것이 적당하다. ④ 뒤에 보면, ‘만약 그가 이기면 P는 계약을 시행할 권리를 잃을 것이고 그러면 E는 갚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여전히 E에게 유리한 식이니까 이 정도에서 답이 확실해졌다.

15 ①의 he는 레이건이고, ②의 he도 노령 때문에(나중에 치매가 실제로 오기도 했지만) 사람들이 레이건의 정신건강을 걱정한다는 말이다. ③ 나이 때문에 불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‘개가 너무 어리다는 것을 트집잡진 않을게요’라고 받아쳤다. 대단하군! ④ 이 지점에서 젊은 상대는 선거에서 졌다고 직감적으로 느꼈다는 말이다. 미국인의 농담으로 받아치기에 경험이 없다면 ③과 ④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.

16 먼저 Walters가 뭐하는 사람인지 첫 문장에서 확인한다. truck driver였는데, airship을 1982년에 만든 사람이군. 선택항을 보면 ①은 옳고, ②는 1982년에 쓸 방법으로는 원시적으로 보이나 틀린 것이 하나 뿐이므로 ‘풍선’으로 확인하기로 하고, ③은 Long Beach로 확인하데, 풍선을 터뜨리는 해프닝이 있었다면 가능할 수 있고, ④는 ③번과 배치되는 이야기이다. 따라서 선택항을 구성하면, 트럭운전사가 비행선을 만들고 내려올 때 풍선을 터뜨리다가 정전사태를 일으키는 항공법을 위반한 사례를 만들었다는 것이 이야기가 되므로, 본문 아래쪽에서 법 위반을 확인한다. subsequent arrest for breaking federal aviation laws에서 답은 확인된다.

17 (A) 앞에 ‘두 변수 사이의 관련을 정확하게 테스트할 수 있다’고 했으므로, 그 다음에는 how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와야 한다. 물체가 떨어지는 높이와 걸린 시간을 점검하는 것은 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방법의 예이므로 for example을 선택한다. (B)의 앞의 내용은 control이 덜 완벽하다는 것이 요점이고, (B) 뒤는 경제원칙들이 덜 확실하다는 것이 요점이므로 두 문장은 순접적 관계이자 인과관계이다.

18 빈칸 앞에 있는 wired에 해당하는 말과 빈칸 뒤에 있는 connected with friends에 해당하는 말은 social이다.

19 첫 문장에서부터 emotional tears가 역사상, 모든 사회에서 발생한다고 했고, 그 후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예들이 나오므로, 이 글의 제목은 ① benefits, ② stop weeping, ④ effects가 아니고 ③ tears, universal이 맞다. 마지막 문장에서 미국에서 거의 울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남성들조차도 어릴 때는 그랬다는 말로 마무리하므로 답은 확실하다.

20 첫 문장에서 foraging을 이탤릭으로 강조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. 각 선택항의 요점을 보자. ① 생산적 활동과 생존? ② foraging 개발 필요성? ③ 환경개발? ④ foraging은 생산활동이다. 이 중에 첫 문장과 어울리는 것은 ④번이므로 마지막 문장에서 확인한다. 과일을 알아내고(identify) 따는 행동이 생산의 활동이라는 말로 마무리 했으므로 ④번이 확실히 답이다.